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이광옥*, 채현주**

상명대학교 간호학과*,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wang-Ok Lee*, Hyun-Ju Chae**

Dept. of Nursing, Sangmyung University*, Dept. of Nursing,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충남 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12월 1일에서 12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t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대학생활적응, 간호전문직관은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r=.448, p<.001$) 및 간호전문직관($r=.376, p<.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감성지능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감성지능, 대학생활적응, 전문직관, 간호,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72 nursing students of a university in Chungnam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December 1 to 20, 2015.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20.0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 test. The level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not high, a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college adjustment($r=.448,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ism($r=.376, p<.0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for improvement of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Key Words : Emotional Intelligence, College adjustment, Professionalism, Nursing, College student

Received 30 August 2016, Revised 30 September 2016
Accepted 20 October 2016, Published 28 Octo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Hyun-Ju Chae(Joongbu University)
E-mail: hjchae@joongb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처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1,2].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으로 이 시기에 형성되는 적응은 현재의 생활 뿐 아니라 이후의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대학생활은 학업 및 동아리 활동, 진로선택 및 취업활동, 대인관계 등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을 보다 많이 요구하므로 대학생들에게 성장의 기회인 동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4].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과중한 학업부담 및 임상실습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대부분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4,5] 일부는 학업을 포기하기도 하는데[6], 최근에는 자신의 적성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간호학과를 선택하거나 전공에 대한 고민 없이 입학한 학생들이 증가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부적응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7,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부적응은 간호사 포기 또는 간호사의 전문적 역량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간호 인력의 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간호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4,9].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직업 의식적인 견해를 의미한다[10]. 대학에서 전문적 간호 교육을 받는 동안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면서 간호전문직관도 발달하고 성숙한다[11]. 그러나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낮은 편으로 간호사 스스로도 간호사는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이러한 낮은 전문직관은 높은 이직의도와 관련 있으므로[12],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학생과 경력 5년 이상인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는데[13], 이는 간호교육이 간호전문직관의 토대를 다져주는 초석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4].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은 병원현장에서 간호의 미래를 주도할 간호대학생에게 뚜렷한 간호이념과 목표를 가지게 한

다[15].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이 학생 시절부터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간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6,17,1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및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형성은 간호학생 뿐 아니라 간호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 및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은 대처방식, 심리적 안녕감, 대인관계,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9,19,20],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요인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스트레스, 간호사 이미지, 생명윤리의식 등이 보고되고 있다[16,17,18,21]. 그러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며 효율적 대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간호 직종에서 갖추어야 하는 주된 능력으로 간호대학생 역시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감성지능[22]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감성지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성향 중 긍정적 감정 성향으로[23],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24]. 감성지능은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대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도록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25,26], 전문직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그러나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감성지능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전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 소재 A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180명의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172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3,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수는 134 명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3 연구도구

2.3.1 감성지능

Wong과 Law[23]가 개발한 감성지능 측정도구를 Jung[28]이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한 평가 (self-emotion appraisal) 4문항, 타인의 감정에 대한 평가 (other's emotion appraisal) 4문항, 감정의 사용 (use of emotion) 4문항, 감정의 조절 (regulation of emotion)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 까지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총점은 16점부터 112점까지의 범위를 가

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Wong과 Law[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9 \sim .82$ 이었고, Jung[28]의 연구에서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2 대학생활적응

Jeong과 Park[2]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9문항으로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 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총점은 19점에서 9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eong과 Park[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Yeun 등[10]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29문항을 Han 등[29]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을 통해 18문항으로 축소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총점은 18점부터 9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 등[2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 12월부터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하며 설문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없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

구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작성한 설문지는 설문지 수거함에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설문지 수거함에 넣도록 하여 설문작성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구 참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win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감성지능, 대학생활적응, 간호전문직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ANOVA 분석의 사후검정은 Scheffé 검정을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성별은 여학생이 87.2% (150명)으로 더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이 30.8%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무교인 경우가 57.0%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본인 의지인 경우가 51.5%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가 49.4% (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과 외 활동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61.6% (106명)으로 참여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는 병원간호사가 82.6% (142명)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3.2 감성지능,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112점 만점에 평균 80.20점이었

고, 대학생활적응은 95점 만점에 평균 64.68점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90점 만점에 평균68.58점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n=1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2	12.8
	Female	150	87.2
Grade	Freshman	33	19.2
	Sophomore	40	23.3
	Junior	53	30.8
	Senior	46	26.7
Age(yr)	≤ 20	54	31.6
	21	40	23.4
	22	36	21.1
	≥ 23	41	24.0
Religion	Christianity	47	27.3
	Catholic	18	10.5
	Buddhism	9	5.2
	None	98	57.0
Reason for application	According to results	21	12.2
	One's own will	88	51.1
	Recommendation	22	12.8
	For employment	29	16.9
	Others	12	7.0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	3	1.7
	Dissatisfied	15	8.7
	Ordinary	56	32.6
	Satisfied	85	49.4
	Very satisfied	13	7.6
Extracurricular activities	Joined	66	38.4
	Not joined	106	61.6
Desired carrier	Hospital nurse	142	82.6
	Nursing public servant	9	5.2
	Graduate school	2	1.2
	Others	19	11.0

<Table 2> Emotional intelligence,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72)

	Possible range	Min	Max	Mean±SD
Emotional intelligence	16 ~ 112	48	108	80.20±11.45
College adjustment	19 ~ 95	38	95	64.68±9.71
Nursing professionalism	18 ~ 90	52	90	68.58±7.50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전공만족도 및 교과 외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학생이 보통인 학생에 비해 감성지능이 높았으며($F=5.58, p<.01$),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났다($t=2.85, p<.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은 간호학과 지원 동기, 전공만족도, 교과 외 활동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본인 의지로 간호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으며($t=2.01, p<.05$),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인 학생에 비해 높았고($F=9.85, p<.001$),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2.05, p<.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성별, 학년, 간호학과 지원 동기, 전공만족도, 졸업 후 희망진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t=2.07, p<.05$), 2, 3학년 학생이 4학년 학생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F=4.08, p<.01$). 본인 의지로 간호학과 지원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t=2.43, p<.05$),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F=5.59, p<.01$), 졸업 후 진로로 병원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2.04, p<.05$) <Table 3>.

3.4 감성지능,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았으며($r=.448, p<.001$), 간호전문직관($r=.376, 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112점 만점에 80.2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Song과 Chae[3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81.7점으로 나타난 결과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며, 최순옥 등[20]의 연구에서 76.42점으로 나타난 결과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Song과 Chae[30]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수준은 연구에 따른 큰 차이가 없는 편이며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수준은 선행연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전반적인 감성지능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학생이 보통인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F=5.58, p<.01$). 이는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9].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환경과 현실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감성을 조절하여, 자신의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며 그 결과에 만족한다[24].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간호학에 대해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목표에 따라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므로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t=2.85, p<.01$), 이는 Song과 Chae[3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동아리활동과 같은 교과외 활동은 본인의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교과활동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 및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교과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증가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95점 만점에 64.68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8.0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측정된 Lee 등[31]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23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4.6점)임을 보고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본 연구와 다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n=17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motional Intelligence	College adjustment	Nursing professionalism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22	83.50±14.60	67.27±6.76	71.64±7.63
	Female	150	79.71±10.88	64.29±10.04	68.12±7.40
	t(p)			1.17(.253)	1.35(.180)
Grade	Freshman ^a	33	78.82±12.89	64.38±7.56	69.03±7.12
	Sophomore ^b	40	80.93±11.35	64.97±13.10	70.10±8.13
	Junior ^c	53	81.10±12.24	64.73±10.06	69.92±6.94
	Senior ^d	46	79.57±9.65	64.59±7.29	65.38±7.03
	F(p)			0.36(.781)	0.02(.995)
Scheffe					b,c>d
Age(yr)	≤ 20	54	79.04±12.68	64.27±10.20	69.06±7.53
	21	40	82.15±11.02	65.33±12.20	69.50±7.27
	22	36	78.86±10.44	64.89±8.63	68.36±7.59
	≥ 23	41	81.48±10.86	64.40±7.34	67.37±7.77
	F(p)			0.89(.446)	0.10(.958)
Religion	Yes	73	80.76±12.49	65.81±9.68	68.63±8.26
	No	98	79.79±10.68	63.82±9.70	68.54±6.90
	t(p)			0.55(.584)	1.32(.189)
Reason for application	Willingly	88	81.33±11.17	66.13±9.18	69.90±7.07
	Unwillingly	84	79.05±11.69	63.15±10.08	67.13±7.73
	t(p)			1.30(.196)	2.01(.046*)
Major satisfaction	Dissatisfied ^a	18	76.00±11.72	56.00±9.62	64.94±5.45
	Ordinary ^b	56	77.19±12.90	64.36±10.76	67.04±7.70
	Satisfied ^c	98	82.63±9.96	66.52±8.14	70.13±7.36
	F(p)			5.58(.005**)	9.85(<.001***)
Scheffe			b<c	a<b,c	a,b<c
Extracurricular activities	Joined	66	83.27±9.46	66.58±8.57	68.83±6.87
	Not joined	106	78.25±12.20	63.47±10.24	68.41±7.90
	t(p)			2.85(.005**)	2.05(.042*)
Desired carrier	Hospital nurse	142	79.99±11.75	65.08±9.92	69.12±7.27
	Others	30	81.20±10.09	62.83±8.61	66.07±8.13
	t(p)			-0.53(.600)	1.15(.252)

*p<.05, **p<.01, ***p<.001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ollege adjustment (n=172)

	Emotional Intelligence	College adjustment r(p)	Nursing professionalism r(p)
Emotional Intelligence	1	.448(<.001)	.376(<.001)

***p<.001

른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57.43~67.41점으로 보고되고 있는데[9,20,32], 본 연구 및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은 과중한 학업부담과 실습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대부분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4,5,8]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간호학과 지원 동기가 본인 의지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t=2.01, p<.05$),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가 만족이거나 보통인 학생이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F=9.85, p<.001$). 이는 간호학과 지원 동기 및 간호학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Jung과 Chung[1]의 연구 및 Ko[1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최근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 중 간호학과 관련된 자신의 적성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간호학과를 선택하거나 전공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입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대학생활부적응의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하였는데[7],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를 본인 의지로 지원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전공과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학습의욕과 연결되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는데[1,33], 본 연구에서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교과 외 활동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t=2.05, p<.05$). 이는 동아리 활동이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 동아리 활동은 대학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를 해소시켜 주며 선후배 및 타 학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 낯선 대학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1].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업에 대한 부담

로 인해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3학년부턴은 대부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 및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동아리 활동과 같은 교과 외 활동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성지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동아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90점 만점에 68.58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6.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100점 만점에 75.2점에서 80.16점임을 보고한 선행연구[18,21,34]와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의 가치는 그 전문직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며 이는 간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17]. 그러나 본 연구 및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t=2.07, p<.05$), 이는 Lim과 Jo[1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Ko와 Kim[14]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성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선행연구[11,21,26]와도 상반되는 결과이다. Ko와 Kim[27]은 현재 우리나라는 남자 간호사가 많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간호사를 여성의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실증적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학년제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서는 2,3학년이 4학년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F=4.08, p<.01$). 이는 학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Kang 등[16]의 연구 및 Gu와 Lee[2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학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Kim[11]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들[16,21]은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1,2학년이 임상실습을 한 3,4학년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의 부정적 측면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Kim[11]의 연구는 3,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의 부정적 측면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21], 학년별 교육과정 특성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및 영향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증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16].

간호학과 지원 동기 및 전공만족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본인 의지로 간호학파에 지원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t=2.43, p<.05$), 간호학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F=5.59, p<.01$).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지원 동기 및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학과 지원 동기 및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뿐 아니라 간호전문직관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상담이나 생활지도시 간호학과 지원 동기와 전공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졸업 후 희망진로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병원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t=2.04, p<.05$). 이는 희망진로와 간호전문직관은 관계없음을 보고한 선행연구[14]와 상반되는 결과이나, 희망진로와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반복연구를 통한 실증적 자료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대학생활적응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448, p<.001$), 간호전문직관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48, p<.001$). 이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1,19,20]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여학생의 경우 감성지능이 증가할수

록 간호전문직관이 증가함을 보고한 Kang 등[1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매 학년마다 가중되는 학업부담 및 3,4학년의 임상실습 등을 고려하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신입생 뿐 아니라 모든 학년 학생들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감성지능은 대학생활적응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전략으로 감성지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또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대학생활적응 뿐 아니라 간호전문직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및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정립을 위해 감성지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감성적 능력은 훈련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으며[35], 선행연구에서도 감성지능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감성지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6,37].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38],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 시기에서의 감성지능 교육 및 이를 통한 감성지능 향상은 추후 간호사의 정서적 안녕과 임상수행 및 환자간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38,39], 간호대학생으로서의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 확립 뿐 아니라 간호사로 연결되는 미래를 위해 감성지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높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는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성지능은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을 증가시키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충남지역에 있는 일개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 실증적 자료를 구축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감성지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감성지능 증진이 대학생활적응 및 간호전문직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

- [1] H. J. Jung, H. I. Chung,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1, No.3, pp. 188-196, 2012.
- [2]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1, No. 2, pp. 69-92, 2009.
- [3] H. S. Kim, J H. Lee, M. O. Yang, "A qualitative study in living as a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1, 2014.
- [4]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 [5] J. Por, L. BARRIBALL, J. FITZPATRICK, J. ROBERTS, "Emotional intelligence: Its relationship to stress, coping, well-being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 31, pp. 855-860, 2011.
- [6] H. O' DONNELL, "The emotional impact of nursing student attrition rates", *The British Journal of Nursing*, Vol. 18, pp. 745 - 754, 2009.
- [7] Y. S. Choi,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423-432, 2013.
- [8] Y. J. Kim, "Type of coping with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3, pp. 29-39, 2014.
- [9] H. S. Song, E. S. Na, Y. H. Jeon, K. I. Jung,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Vol. 23, No. 1, pp. 72-81, 2016.
- [10]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 [11] E. H. Kim, "Relationship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4, No. 1, pp. 532-541, 2016.
- [12] M. H. Nam, Y. C.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tter life index, nursing performance and intents to leave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9, pp. 417-427, 2012.
- [13] K. Leduc, A. M. Kotzer, "Bridging the gap: A comparison of th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of students, new graduates, and seasoned professionals", *Nursing Education Research*, Vol. 30, No. 5, pp. 279-284, 2009.

- [14]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62-71, 2011.
- [15] Y. S. Moon, S. J. Han, "Impact of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nurs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72-79, 2011.
- [16] K. J. Kang, Y. S. Jeong, H. M. Seo, M. S. Park, M. Yu, Y. R. Chae et al.,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ism in male and female student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491-501, 2014.
- [17]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17-426, 2014.
- [18] K. M. Lim, E. J. Jo,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556-566, 2016.
- [19]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0, pp. 280-291, 2015.
- [20] S. O. Choi, J. K. Park, S. H. kim,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182-189, 2015.
- [21] H. J. Gu, O. S. Lee, "The correlation between nurse'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356-7366, 2015.
- [22] O. S. Lee, M. O.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749-2759, 2013.
- [23] C. S. Wong,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pp. 243-274, 2002.
- [24] P. Salovey,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 9, No. 3, pp. 185-211, 1990.
- [25] K. J. Ji, J. Y. Yu, "A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happiness university student division of heal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0, pp. 653-660, 2013.
- [26] R. Fernandez, Y. Salamonson, R. Griffiths, "Emotional intelligence as a predictor of academic performance in first year accelerated graduate entr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21, pp. 3485-3492, 2012.
- [27] C. Tayler, C. Farver, J. K. Stoller, "Perspective: Can emotional intelligence training serves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teaching professionalism to resident?", *Academic Medicine*, Vol. 86, No. 2, pp. 1551-1554, 2011.
- [28] H. Y. Jung, "Effectiveness of emotional leadership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foodservice employe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contracted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y",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6.
- [29] S. S. Han, M. H. Kim,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4, No. 1, pp. 73-79, 2008.
- [30] J. E. Song, H. J. Chae,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503-513, 2014.
- [31] G. W. Lee, I. O. Moon, S. K.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4, No. 2, pp. 15-27, 2013.

- [32] S. Y. Yun, S. H. Min,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395-403, 2014.
- [33] Y. J. Kim, Y. Y. Kim, S. M.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children’s english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 39-47, 2015.
- [34] E. J. Seo, N. H. Cha,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5, pp. 349-358, 2016.
- [35] D. Nelis, J. Quidbach, M. Mikolajczak, M. Hansenne, “Increasing emotional intelligence: (How) is it possib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ol. 47, No. 1, pp. 36-41, 2009.
- [36] O. S. Lee, M. O. Gu,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Vol. 44, No. 6, pp. 682-696, 2014.
- [37] M. T. Jdaitawi, N. Ishak, M. N. Taamneh, M. Gharaibeh, N. M. Rababah, “The effectiveness of emotional intelligence training program on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first year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Social Science, Vol. 2, No. 24, pp. 251-258, 2011.
- [38] K. Foster, A. McCloughen, C. Delgado, C. Kefalas, E. Harkness,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 in pre-registration nursing programmes: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Vol. 35, pp. 510-517, 2015.
- [39] M. J. Kim, G. Y. Kang,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39-47, 2015.

이 광 옥(Lee, Kwang Ok)



- 2008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상명 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 및 노인건강증진
- E-Mail : kolee@smu.ac.kr

채 현 주(Chae, Hyun Ju)



- 2008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부 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성건강
- E-Mail : hjchae@joongbu.ac.kr